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즐거운 축제 [느헤미야 12:27-47]

설교자: 앤드류 드 브리스 (Andrew de Vries)

27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28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동네에서 모여 오고 29 또 벤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아스마웨스) 들에서 모여 왔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동네를 세웠음이라 30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니라 31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로 성 위로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 떼로 나누어 성 위로 향렬을 지어 가게 하는데 한 떼는 우편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32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방백의 절반이요 33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므술람과 34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며 35 또 제사장의 자손 몇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맛다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36 그 형제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래와 길랄래와 마애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37 샘문으로 말미암아 전진하여 성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 길에서 동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38 감사 찬송하는 다른 떼는 저희를 마주 진행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으로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 위로 행하여 풀무 망대 윗 길로 성 넓은 곳에 이르고 39 에브라임 문 위로 말미암아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 문에 그치매 40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떼와 나와 민장의 절반은 하나님의 전에 섰고 41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내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42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웃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히야라 43 이 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 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44 그 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십일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함이라 45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을 좇아 행하였으니 46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두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47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되 그 구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구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구약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삶이 따분하거나 죽은 것이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오늘 설교본문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약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삶은 이 당시에 매우 흥미로웠으며 우리는 큰 기쁨에 가득 찬 그 당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큰 기쁨은 멀리까지 전해졌습니다. 기쁨의 소리가 들려오는 곳에 가까이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본문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단순히 기쁨의 소리만 들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의 선지자가 알았던 기쁨의 본질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1, 사람들은 무엇에 대해 기뻐했는가?: 분명히,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재건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벽재건 봉헌식은 그들을 기쁨의 축제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성벽재건 당시 적들로부터 조롱받았었습니다. *3 암문 사람 도비야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느헤미야 4:3). 지금은 큰 환호의 소리와 함께 성벽을 걷고 그들은 굳게 서있습니다

다. 성벽재건을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축복 덕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의 백성에게 닿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파괴된 도시와 허물어진 사람들을 재건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시대에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2, 이 기쁨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오늘 축제의 핵심사항 중 하나는 정결입니다. 제사장, 레위들, 백성들 그리고 성벽조차도 정결함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 정결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결함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이 불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설 자격이 되지 않음을 느낍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함을 위해 울부짖습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순결하고 깨끗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축제의 또 다른 핵심사항은 노래입니다. 두 그룹의 멋진 성가대가 성벽 주변을 돌며 노래 부릅니다. 우리가 즐거울 때 노래 부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은 노래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들은 자신 스스로에 관해서나 그들이 한 위대한 일들에 관해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관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3, 이 기쁨이 어떻게 계속 지속되는가?: 이 날은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매일의 모든 날들이 이렇게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 되진 않습니다. 이 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기쁨이 지속적으로 흘러넘치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헌금과 십일조를 통해 재정적으로 제사장들과 레위들의 사역을 공급하고 섬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제사장들과 레위들의 사역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게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으로 은혜의 놀라움과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기쁨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